

# 주사랑교회 소식

##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 2. 맥추감사주일

2024년 7월 7일(주일)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반년 동안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되기를 기원합니다.

## 3. 교회학교 여름사역

주일학교 : 7월 29일(월) ~ 31일(수) / 어린이드림캠프(양지파인리조트)  
 중고등부 : 8월 5일(월) ~ 7일(수) / 주사랑교회 및 워터파크(주일학교)  
 청년부 : 8월 5일(월) ~ 7일(수) / 청소년부 연합

## 4. 교회학교 교육주일 (특송 준비)

2024년 7월 14일(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 5. 선교사님 동정

타지키스탄 (이진운-임민주) : 7월 8일(월) ~ 귀국 및 국내일정  
 모 로 코(함베드로-안사랑) : 7/10일(수) ~ 8/27(화) 귀국 및 국내일정

## 6. 구역예배 방학

금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구역예배는 방학기간을 갖고,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안쪽 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활용해주세요.

## 7. 2024년 7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5.26 ~ 6.26)

7/8(월)-한인혜 자매님(-6.3) 7/18(목)-이판순 성도님(-6.13) 7/19(금)-박제연 집사  
 7/19(금)-문효은 자매

##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7/07	맥추감사주일 (성찬예식)
07/08	이진운-임민주 선교사 (귀국)
10~8/27	함영준-안수인 선교사 (귀국)
07/14	교회교육주일(어린이주일학교)
07/21	청소년헌신예배
07/23	경기서지방회 교역자기도회(11시) 행복한교회(박영춘 목사 시무)
07/28	교사헌신예배 / 선교헌신예배 카드시 성교육 세계관
29~31	어린이드림캠프(양지파인리조트)
08/01	첫날빛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산상기도회 (갈멜산기도원)
08/04	청년부 헌신의 주일
05~07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 세가족을 환영합니다 / 박경범(소5)-박경리 전도 주일대표기도



환영

07/07	이광근 안ضمام
07/14	임명자 집사
07/21	임명숙 집사
07/28	김혜숙 권사
08/04	정애자 권사
08/11	이가을 권찰
08/18	박제연 집사
08/25	이광근 안ضمام



주사랑 7권 27호 | 2024년 7월 7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일곱 번째 주일  
**기독교 주사랑교회**  
 대한성결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 맥/추/감/사/절

##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 23:16)

##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 맥추감사주일 ) 인도:집례자

- ※ 목 도 ..... 시편 95:1~3 ..... 다 같 이
- ※ 찬 송 가 ..... 찬 93장 ..... 다 같 이  
( 예수는 나의 힘이요 )
- ※ 사도신경 ..... 다 같 이
- ※ 주기도문 ..... 찬 635장 ..... 다 같 이
- 성서교독 ..... No.105 감사절(1) ..... 다 같 이
- 찬 송 가 ..... 찬 393장 ..... 다 같 이  
( 오 신실하신 주 )
- 대표기도 ..... 이광근안집사  
남전도회장/재정부장
-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5:20~31 (신 282) ..... 이광근안집사
- 광 고 ..... 한승훈 목사
- 말씀인도 ..... 안식 후 첫날 드리던 감사의 보릿단 ..... 한승훈 목사
- 봉헌찬송 ..... 찬 171장 ..... 다 같 이  
( 헌금위원 : 이재희 어린이 )
- ※ 축 도 ..... 담임목사  
(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

##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 일 조 : 김혜숙 정애자 한승훈임명순 / 이옥성 임명순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은총 한태민 한성결 한희락
- 감사헌금 : 이광근박제연 전복순 한승훈임명순 무명(1) / 오동영임명숙 이재우(생일)
- 월삭감사 :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 맥추감사 : 한창수 오경자 무명(1)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 선교헌금 : 한태민 / 한승훈 임명순
- 건축헌금 : 한승훈 임명순
- 후원헌금 : 소망세광교회 희망찬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b>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b> 정수정 목사(예성) 선한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b>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b> 이재우 재학자 홈스쿨링 성품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b>해외선교(모로코)</b> 함베르도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캄이션 파송 소리 단이	<b>해외선교(타지키스탄)</b> 이진운 선교사 임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인터넷 파송 평신도선교사	<b>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b> 기성 최희 향촌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경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	---	--	--	---

## 통일 선교비전 기도회

오후 1:00 ..... 경배와 찬양 .....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예레미야 29:15~32 (구 1097)  
 말씀제목 빛과 소금, 세상을 섬기는 도덕률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통일기도 ..... 다 합 께

##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 경배와 찬양 .....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마가복음 6:1~13 (신 62)  
 말씀제목 따르는 자와 거절하는 자

##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7:30 ..... 경배와 찬양 .....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열왕기상 8:33~43 (구 526)  
 대표기도 ..... 가정의 호주  
 말씀인도 ..... 만아들 딸

##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 경배와 찬양 .....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2:2~10 (신 299)  
 말씀제목 내의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 새 벽 기 도 회

새벽5:30 매일성경 새벽본문

7일일	렘 29:15-32	진실 자기 도덕성 유지 하기
8일월	렘 30:1~11	고통스런 시간을 잘 보내기
9일화	렘 30:12-24	우를 살리는 회개안내 마음
10일수	렘 31:1-9	하나님의 영혼신 사랑
11일목	렘 31:10-22	회복을 위한 잔제 쪼갬?
12일금	렘 31:23-40	하나님의 신한 계약과 성리
13일토	렘 32:1~15	왜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가?
14일일	렘 32:16-25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무능

(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 ⑦ 솔로몬이 내소 중앙에 세운 형상으로 신성한 직분을 맡은 천사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창 3:24),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며(겔 1:4), 성전을 수호하며(대하 3:10~13),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보좌를 상징하는 형상은? (왕상 6:27)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 )을 두었으니 ( )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 )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 )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 ⑧ 솔로몬 왕궁의 건축 중 늦쇠 대장장이 히람이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특별한 기둥으로 지붕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기둥의 이름은? (왕상 7:21)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 )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 )라 하였으며
- ⑨ 성막에서 물두멍 용도의 성물로써, 초기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번제의 제물을 씻는 것으로 사용되다가, 후에는 제사장이 몸을 씻는 장소로 사용된 것은? (왕상 7:23)  
 또 ( )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 ⑩ 다윗의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막대한 양의 건축자재를 준비했는데, 성전건축을 모두 마치고 남은 자재를 두기 위해 제작된 특별한 장소는? (왕상 7:51)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 )에 두었더라
- ⑪ 솔로몬은 언약궤를 어떻게 안치 하였나요? (왕상 8:6~9)  
 ( )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 )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퍼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 )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 )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 ⑫ 다윗의 신앙과 헌신을 계승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근본적인 이유는?(왕상 8:20~21)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 )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 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 )를 위하여 ( )를 설치하였노라  
 (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재분해 해드립니다 )

- ① 솔로몬 왕국이 타민족으로부터 침입과 약탈이 없어졌고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축복은? (왕상 4:24~25)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 )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 )에서부터 ( )에 이르기까지 각기 ( ) 아래와 ( )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 ② 선왕 다윗의 때에 화친을 이루었던 이방의 왕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상의 백향목을 지원했던 왕으로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장차 온세계와 열방이 함께 섬기고 복을 받아야 할 곳임을 예표하기 위해 쓰임 받은 인물은? (왕상 5:7~8)  
(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 )할지라도 그가 ( )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 ) 재목과 ( ) 재목에 대하여는 ( ) 할지라
- ③ 솔로몬 성전 건축의 역사적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왕상 6:1)  
이스라엘 자손이 ( )에서 나온 지 ( )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 ④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성전건축보다 중요한 성전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왕상 6:12~13)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 )를 따르며 내 ( )를 행하며 내 모든 ( )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 ⑤ 솔로몬의 성전 양식은 모세 시대의 성막과 같은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어떻게 공간을 확보했나요? (왕상 6:16~17)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십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 )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 ) 앞에 있는 ( ) 곧 성소의 길이가 사십 규빗이며
- ⑥ 모세 시대의 지성소의 역할을 위해 솔로몬 성전도 이곳을 만들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성물을 안치했는데 무엇인가? (왕상 6:19~20)  
여호와의 ( )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맥추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 하여 '초실절'(출 34:22), 무교절 지난 후 50일째 맞이하는 절기라하여 '오순절'(레 23:15~22), 또 무교절 후 안식일이 지나서 일곱 안식일(7주간)이 지난날이라 '칠칠절'(레 16:9~12)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맥추절은 밀의 추수의 의미를 넘어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맥추절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 해서 오순절 또는 성령강림절로 지켰습니다.

성경적으로 오순절이나 맥추절은 같은 의미이지만, 한국교회의 경우는 맥추절인 오순절은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감사절은 시기와 상관없이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문화는 과거에 한국의 농경 사회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 대부분의 농사는 이모작(보리,벼)을 했습니다. 봄철의 주된 농산물은 보리로 맥추감사절로, 가을철의 주된 농산물은 벼로써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이는 배고프고 굶주린 보릿고개 시대에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보리 추수를 통해서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의 계시적 의미가 <감사>이듯, 맥추감사절의 계시적 의미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인 의미로써 맥추절(구약-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신약-성령강림절)과는 구별되게,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절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신 26:1~11).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을 방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착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땅에 수고했음지라도 그 소산을 얻게 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입니다. 비록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생명의 보존을 위해 애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보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시 127:1~2).

둘째,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맥추절은 곡식(육체의 양식)을 얻는 절기이며, 동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영혼의 양식)을 받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마 4:4). 우리의 참 음료요, 참 떡이신 예수님을(요 6:55)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한해의 터닝포인트 기회를 주신 자비에 감사해야 합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적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날 베풀어주신 은혜를 살펴 감사하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도 나머지 반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송가	..... 찬 242장	다	같	이
대표기도	.....	말	아	들
성경봉독	..... 열왕기상 8:33~43 (구 526)	가	족	이
누구든지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인도	.....	아	버	지
합심기도	.....	다	같	이
헌금찬양	..... 찬 420장	다	같	이
헌금기도	.....	어	머	니
주기도문	.....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에서 성전 봉헌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문제 속에서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내용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패전과 기쁨, 질병, 전쟁, 메뚜기와 황충 등의 자연재해 및 재앙을 맞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참 회개와 진실한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사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은혜를 구할 때에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응답하셔서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봉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둘째부터 다섯째까지의 기도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패배 했을 때, 기쁨의 때, 재앙과 질병과 외세 침략의 때,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재라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막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두 본문은 시대적으로 각각 출애굽 제2년, 광야 제 40년의 상황에 해당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언약 백성의 의무이며,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할 것을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백성을 향한 왕의 심정과 백성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 솔로몬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능력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주사랑교회 가족 공동체가 됩시다.

둘째, 자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 할 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임을 고백합니다.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거나, 기근이 찾아오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메뚜기·황충 등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의 일입니다. 이 백성의 인격적인 반응은 기대하시는 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모두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곤경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살피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빠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 할 지라도, 문제와 상황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는 주사랑교회 가족 공동체가 됩시다.

셋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나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습니다(사 56:7, 막 11:17).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에게 행하신 기적과 진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광야에서 바산의 왕 옥과 헤스본의 왕 시혼에게 행하신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기생 라합처럼(수 2:9~11),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능력 있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체험토록 열린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사랑교회 가족이 됩시다.

■ 결론

C.S 루이스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윌우드에게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대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애매모호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기도가 소용없는 절박한 상황도 없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누구든지”,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